

國策연구 汎部處 공동추진

科技處, 대형공동연구사업형태로 전환

「國策연구개발사업단」 발족

지난 82년부터 과기처가 국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해오던 특정연구사업이 관련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적인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정부가 전액투자하는 단순연구사업개념에서 정부부처별 기술수요상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조직적인 사전기획에 의해 추진되는 대형공동연구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책연구사업의 범부처적인 공동추진계획」에 따라 産·學·研 및 과기처, 경제기획원, 상공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 사업단은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수행 및 평가등 4단계의 사업시기별로 각 부처 및 관련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 연구수행에 반영한다.

사업단은 우선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74명, 산업계 74명, 학계 1백8명, 연구계 76명등 모두 2백99명으로 전문가단을 구성, 연구기획 및 연구과제 도출을 할 계획이다.

연구과제선정단계에서는 각계 대표 31명이 참여하는 「국책

연구개발심의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국제 科技협력센터」

科學財團부설로 설립

美國·日本·유럽등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및 蘇聯등 北方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교류업무를 전담할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립된다.

科技處는 높아지는 기술장벽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하고 우선 현재 開途國 기술공여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 기술공여사업소를 확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로 개편키로 했다.

이 센터는 외교적 성격이 짙은 對개도국 업무는 외무부로 넘기되 △해외과학기술동향의 수집분석, 국제공동연구등 국제과학기술교류활동의 지원, △해외기술의 국내이전 및 소화개발지원, △국내적정기술의 개도국이전, △고급해외기술인력의 유치활용과 지역협력사업등을 수행케 된다.

91年度 學會 학술지원증액 要請

科總 權彝赫회장등 黨·政府방문

1991년도 정부예산편성작업 대폭 높여주는데 黨이 협조해 이 경제기획원당국에 의해 본

격 추진됨에 따라 科總은 회장단을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민주당에 대한 내년도 학회 학술활동 지원예산의 증액등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科總 權彝赫회장과 鄭助英 상임부회장은 지난 7월18일 민주당으로 朴泰俊대표최고위원과 金龍煥정책위원회의장, 徐相穆정책실장을 방문하고 기초과학의 육성을 통한 기술개발혁신을 위해 91년도 학회 학술활동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출 것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8월18일에도 權회장과 鄭상임부회장은 경제기획원 朴淸夫 예산실장을 비롯한 金正國국장등 예산편성당국자들을 방문, 학회학술활동예산증액에 대한 정부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科總의 금년도 학회학술활동지원액은 9억6천8백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이를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백53개 核心기술 집중개발

95년까지 3조4백억投入 반도체등 개발

商工部, 기술발전 5개년계획 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2조4백억원을 투입, 전자산업 정밀가공 반도체 항공기등 20개분야 1백53개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이 기간중 1조원을 별도 지원하는 한편 국산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며 시험연구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별상각제도를 확대하는등 기술개발 관련 금융·조세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商工部는 8월16일 林寅澤차관 주재로 산업기술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생산기술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1백53개 기술을 열처리·표면처리등 취약한 제조가공기술 32개를 비롯 반도체 각종 기기의 센서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74개, 신소재·지능형 로봇 제작기술등 첨단기술 47개등으로 각각 분류해 오는 95년까지 취약기술은 독자적 응용단계로, 핵심요소기술은 창조적

개발단계로, 첨단기술은 기술진입단계로 각각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32개 제조업 업종의 기술개발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기술개발과제를 선정, 이중 △다이아몬드 코팅기술·클린룸 자동제어기술등 13개를 내년중 개발완료하고 △92년중 초정밀 외경연삭기·압전소자 부품등 33개기술 △93년중 초정밀계측 및 측정장치 세라믹 칩커패시터등 38개기술 △94년중 방사능제어장치·자동음성인식기등 35개기술 △95년중 HDTV용 CCD소자·초극세사·항공기관성 항법장치등 34개 기술을 개발 완료키로했다.

이에 필요한 정부지원자금 3조4백억원(산업화자금포함)은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자금 등에서 향후 5년간 각각 1조원씩을 확보, 충당키로 했다.

또 이같은 자금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중 과학기술관련 예산비율을 올해 2.9%에서 오는 94년 4.0%로 높이고 제조업체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도 1.5%(90년)에서 3.0%(94년)로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들 기술개발에 필

요한 기술인력 1만6천95명과 4천명의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해외교포 과학자유치, 이공계대학 및 工高의 정원조정, 국책연구소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기능부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科學문화센터」 건립

科學財團, 大德단지내

韓國科學財團은 오는 '92년까지 忠南 大德연구단지내에 과학기술에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요람의 기능을 가진 「과학문화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지상 10층, 지하 3층에 연건평 1만평 규모로 건립될 이 과학문화센터는 정부투자 1백16억원, 민간자본유치 1백34억원 등 총 2백50억원을 투자, 오는 '9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학문화센터내에는 학회사무실 정보센터 프레스센터 회의실 연구연락사무실 등의 학술활동시설과 영화관 도서관 과학전시실등의 문화시설, 유스호스텔등 지원시설, 은행등의 생활편의시설등을 갖추게 된다.

과학문화센터 건립을 주관하고 있는 과학재단 연구환경조성사업단에서는 이 센터를 연구와 학술활동, 생활편익, 문화적욕구의 충족, 정보화 사회에 대응한 각종 정보의 제공시설, 연구성과의 상호교류와 국제화를 가능케하는 정보통신시설을 갖춘 과학문화도시의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시설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綜合科技심의회」 활성화

科技處, 汎部處의 科技정책추진위해

科學技術處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 관계부처간의 이견을 조정,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사업 기획조정방식도 기존의 프로젝트별 심의회에서 탈피, 정부예산의 일정액을 과학기술분야 예산으로 배정한뒤 이를 다시 규모별·사업별 및 분야별로 나눠 심의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 과학기술사업 기획조정안」을 마련, 9월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지를 계획이다.

과기처는 이같은 일련의 기획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상위기구로 현행 「과학기술심의회」를 활용, 이 심의회를 통해 사업의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이 기구는 정부의 과학기술업무 종합조정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나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15명의 국무위원과 임명직 1명을 위원으로 한 이 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돼

있다.

蔣英實 「8월人物」 선정

과학기술振興에 기여

科學技術處와 문화부는 자동물시계인 自擊漏를 발명했던 과학자 蔣英實을 「8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고 그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인 재발견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달의 문화인물」 두번째로 蔣英實을 선정한 것은 官奴출신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발

명정신과 업적으로 朝鮮초 과학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했던 업적때문.

문화부는 장영실의 문화적·과학적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간과 문화측면의 문화적 업적, △사동화 측면에서의 과학적 업적, △실력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인간상 등 3개 주제를 설정, 이에 따른 행사를 추진했다.

관련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시간과 예술」주제 강연회 = 8월30일 오후3시 문예진흥원 대강당
- 시계특별기획전 = 8월29일~9월4일, 롯데월드 특별전시장
- 장영실발명품특별전 = 8월7일~31일 국립중앙박물관 4층 역사자료실
- 기타 도서관·무용극공연·자격루 설명회 등 개최예정

自擊漏연구회 발족

自動물시계인 자격루등 朝鮮시대의 각종 計時기와 천문기기에 대한 연구, 복원을 추진할 自擊漏연구회가 8월20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世宗 16년인 1434년 7월1일(음력) 경복궁의 보루각에 자격루를 설치하고 표준시각을 時報하는 제도를 만든지 5백56년을 기념하기 위해 음력 7월1일인 이날 창립총회 및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이 연구회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각종 計時기와 천문시계등 조선조의 수준높았던

과학과 정밀기술을 대표하는 여러가지 기기들을 연구, 복원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첫 모임에는 全相運 성신여대교수, 南文鉉 건국대교수등 관계인사들이 참석, 조선시대 시계의 정확한 원류를 추구하고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협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격루 연구회는 자격루와 함께 옥루등 물시계, 앙부일구·정남일구등 해시계, 혼천의·일성정시의등 천문시계를 포함, 전통시계장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自然科學研 등 5개 附設研개소

科技院, 연구중심대학원 운영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중심의 대학원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자연과학연구소등 5개 부설연구소를 설립, 8월21일 大德캠퍼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과학기술원은 그동안 연구부와 학사부의 2원체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7월 연구기능중심의 과학기술연구원을 분리하고 大德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연구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자연과학」 「기계기술」 「산업경영」 「응용과학」 「정보전자」 등 5개 부설연구기관을 세운 것이다.

이들 연구소는 과학기술원 교수 및 학생등 고급과학기술인력과 기존 과학장비 및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자연과학연구소는 물리학 수학 생물공학 화학분야 △기계기술연구소는 기계공학 생산공학 항공공학 핵공학분야 △산업경영연구소는 경영공학 산업공학 산업디자인분야 △응용과학연구소는 재료공학 금속공학 토목공학 화학공학분야 △정보전자연구소는 전기전자공학 전산학분야를 중점 연구한다.

과학기술원은 연구소설립과 함께 교수가 프로젝트별로 활용하던 「박사후 연수과정」을 국내 처음으로 제도화해 내년 25명의 박사급인력을 이 과정에 받아들일 계획이다.

한편 신설연구소는 전체 건물이 완공되는 금년말부터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실험실에는 전자현미경, 핵자기공명장치등을 설치하는

등 금년중 1천7백만달러 상당의 첨단연구장비를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기술원은 △자연과학연구소장에 全學濟씨 △기계기술연구소장에 郭柄晚씨 △산업경영연구소장에 裴道善씨 △응용과학연구소장에 金聖喆씨 △정보전자연구소장에 金在均씨를 각각 선임했다.

高강도 새알루미늄합금 개발

科技院 南壽祐박사팀, 용접성도 우수

높은 강도를 지니면서 용접이 가능한 새로운 알루미늄합금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南壽祐교수팀은 미국·영국등에서만 생산되는 기존의 고강도 알루미늄의 구성물에 지르코늄과 망간을 첨가한후 특수 열처리공정을 통해 기존의 알루미늄합금보다 강도가 높고 인성이 양호한 고강도 알루미늄합금개발에 성공했다.

南교수팀이 개발한 이 합금은 기존의 고강도 알루미늄합금조성인(알루미늄-마그네슘-아연계 합금) 이른바 7000시리즈중 가장 강도가 높은 7050, 7075재료와 비교해 항복강도(변형저항)와 인장강도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들 재료가 가진 非용접성을 극복했다.

현재 7000시리즈 합금은 영국의 알칸社가 항공기 및 장갑차판재용으로 거의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합금은 이 제품보다 성능면에서 20%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입에만 의존하던 7000시리즈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 실용화할 경우 고속전철 자동차경량화구조용 가스용기 및 특수선박용 재료등 국내군수 및 민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0억달러규모의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수입알루미늄합금이 kg당 5달러(防産用的 경우 비과세로 4달러20센트)인데 반해 국산 알루미늄합금의 생산원가가 3달러85달러에 불과해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난 88년 7월 과기처로부터 연구비 5천7백만원을 받아 연구에 착수한지 2년만에 개가를 거둔 것이다.

大賞에 김형우군의 「뿔뿔기」

제2회 學生科學發明품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은 「도시락 온장고」

제12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주최 : 과기처·동아일보사 협찬 : 한국야크르트乳業)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상금 2백만원)에는 光州백운국민학교 6학년 김형우군이 출품한 「뿔뿔기」가 차지했다.

또한 국무총리상에는 경남거창중유국민학교 5학년 이경영군이 출품한 「도시락온장고」가 차지했으며 금상에는 생활과학 부문에 서울 목일중학교 2학년 최병준군의 「자동 농약혼합분무기」, 학습용품 부문에 부산공업고등학교 2학년 김철군의 「빛의 특성관찰 실험기구개발」, 과학완구 부문에 충남 부여 소사국민학교 5학년 이영광군의 「다목적 볼링놀이기구」, 폐품활용 부문에 충남 서산 산성국민학교 5학년 김홍표군의 「헌스타킹을 이용한 경기 및 놀이용 다목적줄」이 뽑혔다.

우리나라의 百年大計를 위해 어릴때 부터 과학을 탐구하는 연구심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총 6천2백10점 가운데 지방예선을 거친 2백98점이 전국 본선대회에 출품되어 대상, 국무총리상 각 1점을 비롯 금상 4점, 은상 32점, 동상 80점 등 총 118점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의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와 지도교사 그리고 금상수상자는 유럽지역의 과학관련분야를 견학하는 특전이 주어지며 입상작품은 8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국립서울과학관(구국립과학관) 특별전시실에 전시된다.

이번에 대상으로 뽑힌 「뿔뿔기」는 재래식 뿔뿔기로는 못의 머리부분이 없거나 판자로부터 높이 있을 경우에는 못을 뽑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데 착안, 뿔지의 작용원리를 이용하여 못부분을 물고 줄임과 동시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힘을 증가시키면서 못을 쉽게 뽑는 기구를 개발한 것으로 뿔뿔만 아니라 파이프, 비닐하우스, 지지대 등도 쉽게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도시락온장고」는 냉장고와 역기능 관계인 보온통의 제작원리가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폐기상태의 냉장고에서 소형 송풍기만을 남기고 콤퓨레샤, 냉각기, 기타 불필요한 전기회로 등을 제거한 후 열선을 배치한 방열판을 부착시키고 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장착하면 70℃ 정도의 완성된 온장고의 기능이 되

며 외형이나 단열효과 및 절전효과가 뛰어나 학교나 일반직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이라는 면에서도 자원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퍼스컴 競進대회 개최

11월14일 잠실체육관서

제7회 전국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가 오는 11월 1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의 본선대회를 앞두고 8월 20일부터 참가신청서 교부를 시작했다.

과기처·문교부·체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한국전기통신공사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퍼스컴의 지속적인 보급과 이용기술확산으로 사회전반의 능률향상과 정보화 사회의 조기달성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널리 발굴하여 이를 장려하고 활용함으로써 국내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번 대회는 공무부문과 경시부문으로 나뉘어 열리게 되는데 경시부문은 초·중·고·교사부는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10월 15일까지 예선대회를 치루고 대학·일반부는 10월 21일 서울선린상고에서 예선대회를 갖는다.

또한 기초 S/W를 비롯 S/W 공학, 인공지능, 응용S/W, 교육용 S/W를 응모할 수 있는 공모 분야는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토질공학회

대한토질공학회(회장 金翺圭)는 日本土質工學會와 공동으로 최근들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심지에서의 굴착과 터널시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첫날은 「도심지터널」을 주제로 도쿄이과대학 후지타 게이이찌교수의 「연약지반의 터널시공」 등 5편의 논문이, 둘째날에는 「도심지굴착」을 주제로 한양대 정형식교수의 「타이백 앵커의 굴착중하중」 등 6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논문발표외에도 수도권 건설현장의 기술시찰과 토질공학의 기술, 공법기자재 전시회도 아울러 열리게 된다.

한국동물분류학회

韓國動物分類學會(회장 李昌彦)가 주최하고 한국식물분류학회,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등 10개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의 자연연구와 국립중앙

자연사박물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움이 9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의 동물연구와 표본보존의 현황(김익수/전북대)」 「한국의 지질연구와 보존관리의 문제점(원종관/강원대)」 「한국의 희귀동식물의 보존과 과제(원병오/경희대) 등 10개연제 발표와 「국립중앙자연사박물관」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회장 池哲根)는 조명 및 전기설비분야의 국내의 첨단기술 및 정보동향 등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오는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기설비의 현대적 시설 및 관리」라는 제목으로 실시하는 전기설비분야기술교육에선 서울대 池哲根박사 등 6명의 연사가 「전기설비계획」, 「전력중앙감시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와 응용」, 「최신정보설비의 동향과 적용」, 「전원설비」,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보전 및 운전」 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조명과 생산성향상」이란 제목으로 실시하는 조명분야 기술교육은 전남대 呂寅

善교수 등 6명의 연사가 「조명과 생산성」, 「우리나라 생산조명실태와 개선방안」, 「주광조명계획」, 「광원의 특성과 응용」, 「조명기구의 특성과 응용」, 「우수한 생산조명기술과 관리」에 대하여 강의하게 된다.

한국요업학회

韓國窯業學會(회장 張性道)는 8월 9일~10일 양일간 단양파크관광호텔에서 제18회 시멘트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선 한양대 朴容浣교수의 「New Ceramics를 위한 원료처리」 인하대 韓基成교수의 「유럽에서의 알루미늄시멘트의 연구동향」 등 특별강연 두편과 「고강도 시멘트의 제조에 관한 연구」, 「시멘트 밀 생산성향상을 위한 개조결과」 등 1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미생물학회

韓國微生物學會(회장 崔榮吉)는 서울대 分子미생물연구소(소장 河永七)와 공동으로 「단백질공학의 진보와 전망」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8월3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미국 Merck, Sharp & Dohme연구소 Charles Russell Middaugh박사의 「단백질공학의 원리」등 미국, 일본, 국내학자 6명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있었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약학회

大韓藥學會(회장 禹源植)는 우리나라 신약개발정책과 기술개발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내년 8월 18일부터 6일간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 신약개발 국제학술회의에는 소련·유고·폴란드등 동구권학자 1백50여명을 포함, 노벨상수상자 2명등 세계 50여개국에서 2천여명의 관련 학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 국제회의에선 △신약약품 개발전략을 주제로 4개연제가 △신약합성심포지움 4개 △생명공학기법에 의한 신약개발 심포지움 4개 △미립자코팅기술 및 약물전달시스템심포지움 3개 △천연물에서의 신약개발 심포지움 3개 △효능별 약효 검색심포지움 3개등 모두 21개 신약개발 관련 심포지움과 함께 △제제기술을 주제로 한 워크숍 △신약개발 기술관련 시설 기기 및 각종 전시회도 아울러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大韓齒科醫師協會(회장 李鍾守)는 8월8일 협회회의실에서 제4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는 10월21일로 확정된 창립70주년 기념 제40회 종합학술대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구강보건 인력수급대책연구의 지원과 치과재료분석을 의뢰키로 하는등 제반 현안문제를 토의했다.

이날 구성된 종합학술대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에 崔富暁 학술담당부회장이, 위원에는 張英一 학술이사등 5명의 이사가 선임됐다.

한국물리학회

아시아·태평양 물리학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물리학회가 주관하는 제4회 아시아·태평양 물리학 학술회의가 8월13일부터 17일까지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및 과학관에서 열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물리학 전반에 걸친 대규모의 이번 학술회의에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소련등 33개국에서 3백여명의 외국학자와 국내학자등 6백여명이 참석, 「입자물리학」 「원자핵 물리학」 「고체물리학」 「열 및 통계물리학」 「플라즈마 물리학」 「과학 및 양자전자학」 「원자 및 분자물리학」 「응용물리학」 「가속기물리학」 「물리학 일반」등 10개 분야로 나뉘 5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소립자 이론물리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양첸닝박사(中國系·美뉴욕주립대교수)를 비롯 반도체물리학의 권위자인 레오나 에사키

박사(日本系·美IBM), 입자물리학의 권위자인 새뮤얼 칭박사(中國系·美MIT공대)등 3명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가 참석했다.

한국고분자학회

韓國高分子學會(회장 安泰玩)는 8월25일 KIST 화공과 강의실에서 日本 京都大 유끼오 이마니시교수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끼오교수는 「Design and Synthesis of Signal-Responsive Insulin Releasing Device」에 대해서 강연했다.

한국약제학회

韓國藥劑學會(회장 金吉洙)는 한국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제2회 제제기술워크숍을 8월 29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액상제제의 처방설계 및 제조 공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무균제제의 처방설계(김종국/서울대)」 「생약제제의 처방설계(허재두/광동제약 중앙연)」 「복합비타민액제의 설계(김현주/유한양행 중앙연)」 「난용성 약물의 가용화(서성훈/경희대약대)」 「액상제제의 안정화(차봉진/동아제약중앙연)」 「액상제제의 품질평가(장승엽/국립보건원)」 등 6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학회회원단체 9월 학술행사계획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시	장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식	한·일 건설기술세미나	9.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지철근	추계조명·전기설비기술교육	9.13~15	건축회관
대한국토계획학회	김 원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방안	9.10~16	대만
한국정밀공학회	남궁석	한일 FA합동세미나	9.13~14	중소기업회관
대한법의학회	최 진	전국 법의학세미나	9.14~1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산업미생물학회	양한철	국제미생물학연합회학술대회	9.16~22	일본 오사카조 홀
한국해양연구소	박병권	제2회 국제남극학술심포지움	9.17~21	신라호텔
한국유탄학회	문탁진	제6회 유탄강습회	9.21	기계공업진흥회관
대한약학회	우원식	직타법제제기술 국제심포지움	9.21	인터콘티넨탈호텔
대한교통학회	임강원	제18회 학술발표회	9.22	강릉대
한국지구과학회	민경덕	제26회 정기총회	9.22	서울대
한국식물학회	이인규	제4회 식물생명공학심포지움	9.22	서울대
한국분석과학회	박공식	제5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9.22	전국대
한국경영과학회	박순달	1990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9.22	숭실대
대한마취과학회	김용일	제8차 아세아·오세아니아마취과 학술대회	9.23~28	서울힐튼호텔
한국음향학회	안수길	제3회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	9.28	연세대
대한인간공학회	박경수	추계학술발표대회	9.29	계명대

한국식품과학회 ·
산업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회장 梁漢喆)는 한국식품과학회(회장 金俊平)와 공동으로 아미노산 및 핵산 관련물질 심포지움을 7월 27일 KIST 존슨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첨단 바이오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아미노산 및 핵산관련물질 생신연구의 최신동향과 새로운 용도개발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 심포지움에선 고대 이세영교수의 「유전자 조작에 의한 아미노산 생산균주개발전략」 등 국내학자 5명과 日 교토大 Hideaki Yamada교수의 「Microbial and Enzymatic Process for the Production of Useful Amino Acids and Related Compounds」 등 일본학자 2명이 강연했다.

한국농공학회

韓國農工學會(회장 金哲基)는 8월 11~12일 양일간 경북대

학교에서 '90農工學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부 李官範농어촌개발국장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의 회고와 금후농어촌발전방향」에 관한 특별강연과 농어촌진흥공사 辛逸善실장의 ICID총회 참가보고에 이어 관수배수, 농지조성분야, 수공분야, 구조분야, 토질·농지기획·농업시설·농촌구조·환경분야 등 농공학 전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요량 추정」등 일반연구논문 35편과 「하부조직에서 본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전망」등 학생논문 5편이 발표됐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통신학회

韓國通信學會(회장 康昌彦) 금년도 하계종합학술발표대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관동대학교에서 열려 「통신시스템」 「정보통신」 「교환망」 등 15개 분과에서 「통신시스템개요」(최훈 외/전자통신연) 등 18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이정욱 KTA강원사업본부장의 「우리나라 정보문화의 발전」에 관한 특별강연, 박민용 연대교수의 「Fuzzy 이론의 응용현황과 전망」 현대전자산업(주) 고태호씨의 「ISDN U Transceiver 설계」 등 2편의 초청강연과 교육세미나, 통신표준화세미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선 「한글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Type 분류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광운대 남궁재찬교수를 비롯 관동대 배철수교수, 동아대 김명기교수 등 우수논문발표자 3명에게 잇가 4백여만원상당의 현대전자 슈퍼386컴퓨터 1대씩을 각각 부상으로 수여했다.

대한안과학회

大韓眼科學會(회장 尹正佑) 제65회 추계학술대회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웨타론 위커힐호텔에서 열려 심포지움, 숙제보고, 초청강연, 연수교육이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안과의료

보험의 현안문제」 「눈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2개 주제의 심포지움을 비롯 순천향의대 신환호교수의 숙제보고로 「안와의 해부해체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미국 Wayne 주립대 신동호박사의 「Reversal of Optic Disc Cupping in Adult Glaucoma Patients」 등 3편의 특별강연과 결막염에 관한 연수교육이 있었다.

한국조경학회

韓國造景學會(회장 尹昌求)는 금년도 임시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회를 8월 10일 영남대학교 인문관강당에서 열고 특별연구발표 1편을 비롯 일반학술논문 14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상명여대 녹지조경학과 방광자교수를 이사로 인준했으며 오는 '92년 서울에서 열릴 IFLA(국제조경가연합회) 회의의 조경분야 발표주제를 「전통과 창조」로 정했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는 진주농림전문대 이관희교수의 「Cross-sociocultural Comparison of Aesthetic Attitudes to Garden-space with Special Reference to Chatsworth, England and Piwon, KOREA」에 관한 특별연구발표에 이어 「한국공동주택에 있어서의 거주지의 주거만족: 환경설계분야에서의 인과모형의 응용」 등 박사학위논문 5편과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등 9편의 일반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음향학회

韓國音響學會(회장 安秀桔)는 8월 24~25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Man-Machine Interface기술에 관한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KAIST 이항수교수의 「음성인식기술의 최근 동향과 국내 연구개발동향」 등 초청강연 두편과 「시간정보를 포함한 상태천이모델을 이용한 한국어음성인식」 「음성 품질에 대한 오피니언평가법-국내표준화를 위한 제안-」 등 30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수문학회

韓國水文學會(회장 尹錫吉)는 7월 27일 인천대학교 대학원관에서 제32회 水工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수문」 「수자원」 「수리해안」 등 3개 분과에서 「홍수기중 실시간 저수지운영」 등 25편의 논문발표와 한국수자원공사 李太敎사장의 「평화의 댐」 日本九州大 平野宗夫교수의 「密度流경계면의 특성」 李舜鐸교수(영남대)의 「중국의 하천-양자강 三峽댐 계획 및 황하유역의 流砂발생」 등 세편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16메가디램」 개발 성공

三星電子, 91년말 상업용 생산계획

三星電子(대표 姜普求)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의 수개 先進업체만이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반도체인 16메가디램의 실험시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8월 10일 발표했다.

순수 국내기술만으로 개발에 성공한 이 16메가디램은 89년 4월부터 개발에 착수, 1년여의 연구 끝에 이룩한 개가로 한국의 반도체기술이 메모리분야에 있어서는 日本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삼성은 그동안 1메가디램, 4메가디램의 개발생산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11월에 준공한 ULSI연구소의 개발시설을 활용하여 이번에 16메가디램의 개발에 성공한 것.

이번 16메가디램은 연구소 수준에서 試作된 것으로 삼성전자는 91년 3월까지 동실험시제품의 성능과 신뢰도를 제고시켜 엔지니어링 샘플을 확보, 컴퓨터업계에 배포하고 91년말경부터는 상업용 제품을 확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大豆서 天然토크페롤 추출 高麗합섬,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大豆에서 天然토크페롤을 추출해 농축개발하는데 성공했다.

高麗合纖(대표 李相運) 화학

연구소는 1년여의 연구 끝에 大豆에서 콩기름을 짜고난 찌꺼기를 高眞空상태에서 증류시켜 천연토크페롤을 추출, 농축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천연토크페롤은 醫藥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식품의 산화방지용 첨가물로 라면, 마가린, 식용유제조의 필수적인 원료로 현재 천연토크페롤의 국내수요는 연간 2백50억원 규모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합섬은 이번 천연토크페롤 개발방식에 의한 토크페롤의 대량생산을 검토중에 있다.

原電용 로봇개발 본격화 金星産電研, 92년초 완료

金星産電研究所(소장 : 崔浩顯)는 최근 韓國全力技術院과 원자력발전소의 유지 및 보수용 로봇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金星産電과 韓國全力技術院이 총 1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92년초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용 로봇은 원자력발전소내의 작업자를 방사능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증기발생기 속으로 들어가 작업공간에서 충돌없이 정밀작업을 수행한 다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金星産電은 이미 이러한 요구 조건에 맞는 특수한 종류의 기능과 6개의 관절을 갖는 수직다관절형의 기본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星産電은 지난 '89년 말 초당 7m의 동작속도와 ±0.002mm의 정밀도를 갖는 직접구동형(Direct Drive Type) 로봇을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개발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원자력발전소용 로봇의 개발이 '92년초 완료되면 국내기업의 로봇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人工씨감자工場 건립

曙海실업 · 東洋물산합작

지난 88년부터 人工씨감자의 생산을 위해 파일렛플랜트 시설을 갖추고 시험가동해온 曙海實業(대표 韓基淵)이 최근 東洋物産과 합작으로 연간 3천만 개 생산규모의 人工씨감자공장을 건립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92년부터 人工씨감자를 상품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와 합작형태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 人工씨감자는 현재 美國의 플랜트제네릭社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는데 배양기술의 낙후로 대량생산의 문제가 있으나 서해실업에서 추진중인 생산규모는 이보다 50~80배의 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